

獨, 불자 수백만·단체 600개

유력 주간지 슈테른 분석

독일에서는 지금 불교단체의 수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 <슈테른(Stem)> 2월 12일자에 실린 '깨달음의 길' 특집 기사에 따르면 70년대 초 15개 정도에 불과했던 불교단체가 지금은 6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현재 독일에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의 남방불교를 비롯해 중국, 일본, 한국의 선 불교 그리고 티베트불교 등이 들어와 있다. 독일불교연합(DBU)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불교신도는 20만 명이 넘는다.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 수까지 합치면 수백만명은 족히 될 것이라 한다.

어느 불교 단체는 가톨릭 수도원을 사서 공동 거주지(사할)로 개조할 정도로 불교세가 강하다. 그 예로 함부르크 상 파울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여 선박 나사 제조공장을 수행센터로 개조해 현재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문수행자와 과학자들과 담론

독일 전역에 이러한 명상센터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의사, 학자 등 지식인 위주로 구성된 이들은 참선이 깊어지면 다과와 함께 친목을 도모한다. 또한 티베트 스님들의 의식, 밍아진(청정), 집착을 어떻게 놓아가는지를 공부하기도 한다. 그런 반면 근처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 이름을 아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다.

1903년 라이프치히의 칼 사이덴슈타이너라는 학자가 최초로 불교 포교단체를

지식인들 모여 명상센터 열고 참선

불교 강연에 수천명씩 몰려 열기 확산



독일 지식인 사회에서 '불교'는 하나의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사진은 참선 법회에 앞서 입장 중인 독일불자들이.

창설한 이후 독일인 최초로 안톤 구스가 스님이 되었다. 이어 베를린 의사 파울 다울케가 1924년, 불교 센터를 건립했고 현재는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당시 독일 불교인들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고 쇼펜하우어는 기독교의 몰락을 예언하며 '인도의 지혜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희와 인과론은 오랫동안 소수층만의 관심을 끌었으나 60년대 말 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과 히피족들에 의해 세계의 지붕 티베트의 지혜가 서양, 독일까지 건너오게 되었다.

문화도 불법 전파에 큰 기여를 했는데 헤르만 헤세의 <신타르타>가 여기에 속한다. 그 이후 함부르크의 티베트 센터는 7번째 불교 교리 강화를 개설하고 있으며, 어느 베를린 초등학교에서는 불교 공부에 관한 시범적인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 알고이와 아이펠 지방에서는 명상센터가 들어섰고 경제 분야 최고 경영진들이 윈스터 시에 간부급을 위한 선(禪)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곧 작센 지방 타우하에 위치한 시 공원은 절로 바뀌게 된다.

전문 불교 수행자들이 돈 버는 방법이나 환자 돌보는 법에 대한 책들을 내

며 자신들의 경험을 뇌 연구나 핵 물리학자들과 함께 토론한다.

베트남의 탁났한 스님과 같은 여러 선사들은 세계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심리학자, 의사들은 티베트 소갈 린포체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고 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이미 세계 54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으며 죽음을 맞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 불교 강연이 개최되면 시립회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메운다.

초등학교서 불교공부 시범 실시

8세기 경 인도의 한 신비주의자가 한 예언 즉, "최로 된 새가 날아다니고 바퀴 달린 말들이 다닐 때 불교는 먼 나라 서양까지 전파 될 것이다"는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유럽 여기저기 유명 인사들의 모임과 파티에서는 불교가 많은 이야기 거리로 부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배우, 프로 축구선수, 가수, 탤런트들이 공식적 상에서의 인터뷰 등에 나와 불교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과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메달라가는 서구인들에게 많은 가능성과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학문과 철학 그리고 종교 사상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아무도 보장 할 수 없는 일자리, 믿을 수 없는 정치, 그리고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에 불교는 이미 3000여년 전에 심리적 안정과 지혜의 길을 명쾌하게 제시한 것이다.

독일=윤화진 통신원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다도를 체험하고 있는 노이스 시의 부르군더 초등학교 학생들. 팽주인 키어스티인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설명하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윤화진 통신원

마음으로 보고 들은 獨 새싹들

봄 햇살이 청량한 3월 9일 오전 한마음선원 독일선원(지원장 혜진)에서는 노이스 시의 부르군더 초등학교 학생들(10~11세)의 불교수업이 있었다.

두 선생님의 안내로 방만한 23명의 초등학교생들이 생애 처음으로 절 문을 들어서는 순간, 호기심 속에서도 눈빛은 너무나 맑아 보였다.

법당이 조심스럽게 첫발을 들여놓는 순수함과 도울을 주고 있다. 또한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학문과 철학 그리고 종교 사상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아무도 보장 할 수 없는 일자리, 믿을 수 없는 정치, 그리고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에 불교는 이미 3000여년 전에 심리적 안정과 지혜의 길을 명쾌하게 제시한 것이다.

독일=윤화진 통신원

새싹을 보고 깨달으신 부처님과의 공통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아이들은 '별'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스님과의 문답행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별과 마음에 관해 독일 초등학교생들은 생생한 가슴으로 받아들이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별에서 왔죠."

"이 법당이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내 별이 있고 마음과 별은 하나로 통하니 화나거나 슬퍼지면 별이 어떻게 되지요?"

"빛과 힘을 잃어 가요" 큰소리로 대답한다.

"좋은 일을 하며 기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빛과 힘이 커져요"

의롭고 화나거나 슬플 때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전화를 해서 열린 마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순간, 크게 "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마음의 별을 느낀 것 같다.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이러한 중심에너지가 있어 서로 한 뿌리로 통하니 우리 모두 사랑의 에너지로 통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 생활 선법(禪法)을 일러주니 눈빛들이 반짝거린다. 자율적인 종교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닦아가는 독일의 교육이 부럽기만 하다.

묵막 소리에 모두 일어나 감사한 손을 모아 합장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향기롭웠다. 다들 학교로 돌아가기 전 담 앞에 둘러 모여 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듣고 스님께 선재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을 때 하늘에서 작고 하얀 눈이 꽃처럼 내렸다.

독일=윤화진 통신원

초등생 23명 한마음선원 방문

다도·부처님 생애 배우고 문답

자율 종교수업 통해 禪法 체험

“마음 제대로 보는것이 불교”

뉴욕서 열린 민희식 박사 불교 강연

"개인의 인식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대입 실패했다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능력은 무한한데 욕심, 화,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3월 7일 뉴욕 플라시 영인관에서는 한마음불교문화재단(이사장 조일환) 주최의 불문학자 민희식 박사 초청 불교 강연회가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불교와 서구 사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 나선 민 박사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행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민희식 박사는 "불문학자로서 오랫동안 불교를 공부하며 많은 서양 학자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다만 기독교 문화의 영향으로 알려지지 못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플립발리에서도 한국 불교에 대해 강연했다는 민 박사는 "우리가 전설로 치부하는 원호 대사의 해골 물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청중들은 모든 일이 마음의 문제란 것을 깨닫고 눈물



을 흘렸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그 이야기를 듣고 만성병을 고치게 됐다"며 고마워한 프랑스인도 있었다"며 마음 다스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박사는 "돈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성적인 것"이라며 "돈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희식 박사는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교수를 역임했다.

뉴욕=강유신 특파원

베를린 관광 박람회에 '한국 禪' 소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시장 개발에 한국불교가 나섰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관광 박람회 ITB(Internationale Tourismus Boerse)에서 한국의 선(禪)을 소개했다. 참가단은 '한류'를 컨셉으로 한국불교와 음식을 앞세워 다양한 관광상품을 전시·판촉했다. 선 체험 및 설명을 위해 베를린 보문사 주지 병오 스님도 적극 지원했다.

올해 ITB에는 전세계 181개국 1만 여 개의 전시업체가 국가홍보관 또는 독립 전시관 형태로 참가했다. 남동우 기자

한글에너지 전문점 및 사원모집

한글에너지를 만난 당신은 건강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차원 높게 생각하면 살충제, 중금속 등 유해성분과 공해로 인한 유해공간에서 간단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등산 낚시 등 야외, 가정에서 영원히 휴대해야 할 현대인의 필수품, 가정에서 살충제 해방!! 간편하게 카드 한장으로 받 냄새 제거, 벌레퇴치

21C 새로운 에너지

- 특명1: 발 냄새를 잡아라 color neutralize wave(중화파장)
- 특명2: 수액파장을 잡아라 color dry wave(건조파장)
- 특명3: 음식 유해성분을 잡아라
- 특명4: 피부(아토피성) 당노, 고혈압을 잡아라
- 특명5: 바퀴, 개미를 몰아내라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환영(매일11시, 14시 사업설명) 주부사원, 공사직 퇴직자 환영 기본급 + 수당

약국, 미용실, 피부관리실, 24시 매점, 화장품코너, 지물코, 문방구, 식당, 카페, 호텔매점, 등 특약점 모집

공해로 긴장된 공기질을 부드럽게..... 음식영양성분(임차)중금속-유해파장 중화, 수액파장방어 락비지, 인테리어용품

●위치: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권학원동 수성빌딩 4층 지방은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특약점 및 사원모집 상담 021924-5380, 924-5382

한글음파 대체의학 전수자 모집

한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책자 - "한글은 하늘소리 불치는 없다"

이름만 들어도 병을 걸림할 수 있는...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음파 성명의학, 혈당, 혈압조절, 탈모, 피부 아토피성, 환경개선

아~ 내 이름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다니...

공개강좌 매일 오전 11시 제 3기 전수자 및 전국 지회 수련원장 모집

전국 시도 총판모집 한글에너지 본사 상담 02)927-3372

한글에너지 대한은공연구회 www.smile77.wo.to 상담 02)927-3372~3

전수내용: 한글기초에너지, 한글음파 성명의학, 한글음파 대개의학, 한글 성명학, 한글 지음과 모음을 연구한 이름소리의 비밀!!

●위치: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권학원동 수성빌딩 3층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초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원: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모(약 5명) 24실 (각실 인터넷폰 설치) → 오락실, 체널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락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기초치 자광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남대 부처님을 모시고 열불과 기초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초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요양원인 기초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직원입니다
- > 자신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인력한 여성을 제공하며 일종 시기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타 시설과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